

제 4 교시

## 사회탐구 영역(윤리와 사상)

성명

수험번호

2

제 [ ] 선택

윤리와 사상

1. 다음 가상 대화의 스승이 강조하는 삶의 태도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시비(是非)의 구별 없이 만물을 동등하게 대우한다.
- ② 자신의 신분과 지위에 맞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한다.
- ③ 정신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 인위적 규범을 거부한다.
- ④ 사사로운 욕구 실현을 위해 예(禮)를 배우고 익힌다.
- ⑤ 속세에서 벗어나 초월적 존재에게 전적으로 의지한다.

2.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지 않은 것은?  
[3점]

- 올바른 영혼을 가진 사람은 훌륭하게 살지만 올바르지 못한 영혼을 가진 사람은 훌륭하게 살지 못한다. 훌륭하게 사는 사람은 행복할 것이나 훌륭하게 살지 못하는 사람은 불행할 것이다.
- 덕이 영혼 속에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이고 필연적으로 유익하다면 그것은 지식이어야 한다. 왜냐하면 영혼에 관련된 모든 것들은 지식이 더해지느냐 무지가 더해지느냐에 따라 유익하게도 유해하게도 되기 때문이다.

- ① 참된 삶을 깨닫지 못해도 행복할 수 있다.
- ② 무지를 자각하고 참된 삶을 추구해야 한다.
- ③ 덕을 갖춘 사람은 훌륭한 삶을 살 수 있다.
- ④ 덕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덕을 갖출 수 있다.
- ⑤ 올바른 영혼을 가지려면 자신을 성찰해야 한다.

3.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시민 불복종은 법의 바깥 경계선에 있기는 하지만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법에 대한 불복종을 나타내는 것이다. 법에 대한 충실성은 시민 불복종의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인 성격과 그 행위의 법적인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지로 표현된다.

- ① 시민 불복종은 법적인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
- ② 시민 불복종은 정의롭지만 위법한 정치적 행위라고 본다.
- ③ 시민 불복종은 행위의 목적에 공공성이 있어야 한다고 본다.
- ④ 시민 불복종은 공적인 정의관을 근거로 행해져야 한다고 본다.
- ⑤ 시민 불복종은 폭력적이지 않은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고 본다.

4. 다음 동양 사상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윤회(輪迴)를 거듭하는 모든 중생(衆生)이 나의 부모이거나, 중생을 해하는 것은 곧 나의 부모를 해하는 것이며, 나의 옛 몸을 해하는 것이라. 일체의 땅과 물은 나의 옛 몸이요, 일체의 불과 바람은 나의 본체이니 항상 방생(放生)을 행할지이다.

- ① 인간은 자연의 한 부분으로 변하지 않는 실체이다.
- ② 인간은 자연의 다른 생명체들보다 우월한 존재이다.
- ③ 자연은 인과 관계에서 벗어나 있는 무질서의 체계이다.
- ④ 자연은 물질적 풍요를 위해 소유해야 할 대상일 뿐이다.
- ⑤ 자연은 만물이 상호 의존적 관계를 맺고 있는 연결망이다.

5. 다음 가상 편지를 쓴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에게

요즈음 자네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고민이 많다고 들었네. 행복한 삶의 시작이자 끝은 바로 쾌락이라네. 쾌락이야말로 모든 가치를 평가하는 최고선이지. 그런데 내가 말하는 쾌락은 방탕한 자들의 쾌락이나 육체적인 쾌락이 아니라 몸의 고통과 마음의 불안으로부터의 자유라네.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욕구의 적극적인 충족에 따른 쾌락보다는 고통을 제거함으로써 주어지는 쾌락을 추구해야 하네. …(후략).

- ① 모든 욕구를 없애고 자연의 질서에 순응해야 한다.
- ② 평온한 삶을 위해 절제하며 검소하게 살아야 한다.
- ③ 진정한 행복을 위해 쾌락들을 구별하지 말아야 한다.
- ④ 정신적인 쾌락보다는 감각적인 쾌락을 추구해야 한다.
- ⑤ 고통을 제거하기보다 욕구를 적극적으로 충족해야 한다.

## 2 (윤리와 사상)

# 사회탐구 영역

고 2

6. 그림의 강연자가 지지할 주장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것이 윤리의 무한한 상대주의를 인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유나 평등처럼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언제나 존중되어야 하는 보편적 가치가 존재합니다. 우리는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하지만 보편적 가치에 어긋나는 문화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어서는 안 됩니다.



- < 보기 >
- ㄱ. 보편적 가치를 토대로 다양한 문화를 성찰해야 한다.
  - ㄴ. 자문화를 중심으로 타 문화를 열등하게 여겨야 한다.
  - ㄷ. 보편적 가치를 상실한 문화를 관용하지 말아야 한다.
  - ㄹ. 문화의 다양성을 부정하고 전통문화를 보존해야 한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8. 다음을 주장한 서양 사상가의 입장에서 <사례> 속 A에게 제시할 조언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도덕 법칙은 의무이자 강제로 작용한다. 자연적 경향성을 따르는 행위나 단지 의무에 맞는 행위가 아니라 의무로부터 비롯된 행위만이 도덕적 가치를 갖는다.

< 사례 >

고등학생 A는, 게임을 하느라 등교하지 않은 친구의 연락을 받았다. 그 친구는 자신이 아파서 등교하지 못한다고 선생님에게 거짓말을 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친구가 등교하지 않은 이유를 물어보는 선생님에게 A는 사실을 말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다.

- ① 친구와의 우정을 고려하여 사실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 ② 선생님으로부터 칭찬을 받기 위해 사실을 말해야 합니다.
- ③ 거짓말로 얻게 되는 이익을 위해 사실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 ④ 정직한 대답이 가져올 결과를 고려하여 사실을 말해야 합니다.
- ⑤ 거짓말하면 안 된다는 도덕 법칙에 따라 사실을 말해야 합니다.

9. 다음을 주장한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인간은 천성적으로 자유를 사랑하고 타인을 지배하는 것을 선호한다. 이러한 인간이 국가의 구속을 스스로 받아들이겠다고 합의한 이유는 전쟁 상태인 자연 상태로부터 벗어나 자기 보존을 하기 위해서이다. 공통의 권력을 수립하는 유일한 방법은 자신의 모든 권리와 힘을 한 사람 또는 하나의 합의체에 양도하는 것이다.

- ①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이타적 성향을 지닌 존재이다.
- ② 국가는 개인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계약의 산물이다.
- ③ 국가는 모든 시민에게 절대 권력을 부여하는 합의체이다.
- ④ 인간은 자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는 비합리적 존재이다.
- ⑤ 국가는 인간의 본성에 따라 자연적으로 발생한 공동체이다.

7. 다음을 주장한 고대 동양 사상가가 지지할 입장에만 모두 ‘✓’를 표시한 학생은? [3점]

- 사람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道)를 본받고, 도는 자연(自然)을 본받는다.
- 무위(無爲)로 사람을 다스리고, 하늘을 섬김에 있어 중요한 것은 검소함이다. 검소해야 일찍 도를 따를 수 있고, 일찍 도를 따라야 덕을 거듭 쌓을 수 있다.

입장	학생	갑	을	병	정	무
자연을 본받지 않고 도를 따라야 한다.		✓	✓		✓	
자연의 순리에 따라 소박하게 살아야 한다.		✓		✓		✓
덕을 쌓기 위해 인위적인 규범을 배워야 한다.			✓		✓	✓
타고난 본성을 거스르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				✓	✓	✓

① 갑 ② 을 ③ 병 ④ 정 ⑤ 무

10.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 모든 폭력의 이면에는 문화적 폭력이 존재한다. 폭력은 주로 문화적 폭력으로부터 구조적 폭력을 경유하여 직접적 폭력으로 변진다.
- 직접적 폭력이 없는 소극적 평화뿐만 아니라, 간접적 폭력까지 사라진 적극적 평화 상태를 추구해야 한다. 그리고 평화는 어떤 경우에도 평화적 수단으로 성취해야 한다.

- < 보기 >
- ㄱ. 직접적 폭력이 존재해도 적극적 평화는 실현된다.
  - ㄴ. 진정한 평화는 평화적 방법을 통해서 달성해야 한다.
  - ㄷ. 간접적으로 행해진 억압과 착취는 폭력으로 볼 수 없다.
  - ㄹ. 문화적 폭력은 직접적 폭력을 용인하고 정당화할 수 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ㄷ ④ ㄴ, ㄹ ⑤ ㄷ, ㄹ

11. (가)의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은 (나) 그림으로 탐구하고자 할 때, A ~ C에 들어갈 옳은 질문만을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가)	갑: 나는 정부가 완전 고용을 위해 유효수요를 창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방법이 공황으로 인한 시장 경제 체제의 붕괴를 막는 중요한 수단이다. 을: 나는 빵집 주인의 자비심이 아니라 이기심 때문에 식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익을 위한 노동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이끌려 공익도 증진시킨다.
(나)	<pre> graph TD     Start["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탐구한다."] --&gt; A{A}     A -- 아니요 --&gt; B{B}     A -- 아니요 --&gt; C{C}     B -- 예 --&gt; Gaps["갑의 입장"]     C -- 예 --&gt; Eul["을의 입장"]     </pre> <p>&lt; 범례 &gt;      ──: 출발 조건      ⇤: 판단 내용      - - -: 판단 방향      ⌂: 사상가의 입장</p>

- < 보기 >
- ㄱ. A: 개인의 사적 소유권은 제도적으로 보장되어야 하는가?
  - ㄴ. A: 정부는 자원 분배를 위해 시장에 적극 개입해야 하는가?
  - ㄷ. B: 정부는 재정 투자를 통해 실업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가?
  - ㄹ. C: 개인의 이익 추구는 국가의 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가?

-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ㄱ, ㄷ, ㄹ    ⑤ ㄴ, ㄷ, ㄹ

12. 그림은 어느 사상을 검색한 인터넷 화면이다. A 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자민족의 이익을 위해서 타민족에 대한 차별을 강조한다.  
 ② 보편적 인간애가 아니라 자국에 대한 애국심을 강조한다.  
 ③ 국가의 발전을 위해 자국 중심의 배타적 태도를 강조한다.  
 ④ 세계 시민적 가치가 아니라 지역적 가치 존중을 강조한다.  
 ⑤ 지구촌의 문제 해결을 위한 국제적 협력과 참여를 강조한다.

13. 다음을 주장한 고대 서양 사상가의 입장으로 옳은 것은? [3점]

국가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이며 인간은 본질적으로 국가에 살게 되어 있는 동물이다. 국가가 훌륭해지는 것은 행운의 소관이 아니라, 이성적 지혜와 윤리적 결단의 산물이다. 훌륭한 국가가 되려면 정치에 참여하는 시민들이 훌륭해야 한다. 훌륭한 시민으로서의 선과 훌륭한 사람으로서의 선은 같다. 따라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 고찰해 보아야 한다.

- ① 훌륭한 사람이 되더라도 훌륭한 시민은 될 수 없다.  
 ② 국가는 시민의 도덕성과 무관하게 훌륭해질 수 있다.  
 ③ 덕을 갖춘 훌륭한 시민들에 의해 훌륭한 국가가 될 수 있다.  
 ④ 정치에 참여하는 시민은 공동선보다 개인선을 중시해야 한다.  
 ⑤ 국가가 훌륭해지려면 시민이 이성보다 감정에 충실해야 한다.

14.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가 공정의 대답을 할 질문으로 옳은 것은? [3점]

프로테스탄트의 금욕주의는 노동자로 하여금 직업 노동을 소명(召命)이자 구원을 확신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게 하였고, 기업가의 자본 획득도 소명으로 해석하게 하였다. 이러한 금욕주의는 기업가가 금욕적인 노동자를 이용하는 것을 정당화함으로써 자본주의적 의미에서의 노동 생산성을 촉진 시켰다.

- ① 직업 소명 의식은 기업가의 이윤 추구 행위를 정당화했는가?  
 ② 프로테스탄트의 금욕주의는 기업가의 자본 축적을 금지했는가?  
 ③ 쾌락을 향유하려는 욕구가 자본주의 정신의 기반이 되었는가?  
 ④ 프로테스탄트는 직업 노동을 소명이 아니라 형별로 보았는가?  
 ⑤ 프로테스탄트는 구원의 확신을 위해 세속적 직업을 벼렸는가?

15. ㉠에 들어갈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나는 문명 간의 개방과 소통을 통해 문명이 충돌하지 않고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문명의 차이로 인한 국제 갈등과 분쟁은 관용과 화합의 의지로 극복할 수 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각 문명권의 전통문화, 특히 종교가 다른 문명권에 대하여 적대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어 문명의 충돌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나는 이러한 주장이 ㉠  
 고 생각한다.

- ① 문명을 하나로 통일하여 평화를 실현해야 함을 간과한다  
 ② 문명 간의 교류가 국제 갈등을 더욱 심화시킴을 간과한다  
 ③ 문명 간의 소통으로 문명의 충돌을 피할 수 있음을 간과한다  
 ④ 문명의 차이로 인한 국제 갈등은 극복될 수 없음을 간과한다  
 ⑤ 문명의 공존이 아니라 문명의 충돌에 주목해야 함을 간과한다

16. 다음 사상의 입장에서 볼 때, 도덕적 행위의 사례로 가장 적절한 것은?

사회는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는 사람들을 평등하게 대우해야 한다. 이것이 사회적 정의와 분배적 정의에 관한 최고의 기준이다. 이 도덕적 의무는 공리의 원리, 즉 최대 행복의 원리에서 나온 것이다. 공리의 원리는 어떤 사람의 행복이 타인의 행복과 평등하게 계산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 ①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의 원리에 따라 재화를 분배한다.
- ② 사회 전체의 행복 증진과 무관하게 자신의 행복을 추구한다.
- ③ 친구보다 자신의 즐거움을 증진시키는 행위를 항상 선택한다.
- ④ 예측되는 결과와 상관없이 가족을 낯선 사람보다 먼저 돋는다.
- ⑤ 자신의 행복을 계산하지 않고 의무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킨다.

17.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서로를 차별 없이 사랑하면[兼愛] 침략 전쟁이 일어나지 않고, 재물과 목숨을 빼앗는 일이 없으며, 서로를 해치지 않게 된다. 전쟁은 국가와 백성 모두에게 이롭지 않은 것이다. 전쟁에 쓸 비용으로 자국을 다스리면 생산이 커질 것이요, 그 전쟁 비용으로 어려움에 처한 타국을 도와준다면 이로움이 클 것이다.

- ① 자국의 이익 증진을 위한 침략 전쟁은 허용될 수 있다.
- ② 군주는 차별적 사랑으로 천하의 평화를 실현해야 한다.
- ③ 전쟁 비용이 충분하다면 타국을 공격하는 것은 정당하다.
- ④ 침략 전쟁은 천하에 큰 해를 끼치며 의롭지 않은 것이다.
- ⑤ 이로움을 멀리하고 의로움만을 추구하는 정치가 바람직하다.

18. 다음을 주장한 사상가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3점]

자유주의자는 자신을 자유롭고 독립적인 자아로 여기고 스스로 선택하지 않은 도덕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자유주의자는 우리가 공동적으로 중시하는 연대의 의무, 역사를 기억해야 할 의무 등을 이해할 수 없을 것이다. 이 의무들은 우리의 정체성 형성에 바탕이 되는 공동체가 요구하는 도덕이며, 동시에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의무들이다.

- < 보기 >
- ㄱ. 시민은 공동체가 부여한 공적인 의무를 거부해야 한다.
  - ㄴ. 시민은 연대 의식을 바탕으로 공동체에 참여해야 한다.
  - ㄷ. 공동체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 ㄹ. 공동체는 좋은 삶의 원천이며 시민적 정체성의 토대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ㄷ
- ③ ㄴ, ㄷ
- ④ ㄴ, ㄹ
- ⑤ ㄷ, ㄹ

19. 그림은 고대 서양 사상가 갑, 을의 가상 대화이다. 갑, 을의 입장만을 <보기>에서 있는대로 고른 것은?

정의는 통치자에게만 유익한 것입니다. 법을 제정할 때 통치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것을 피통치자에게 절당하다고 선언하며, 법을 어긴 사람을 처벌합니다.



정의는 통치자가 피통치자의 이익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유익한 것을 생각하고 지시하듯이, 통치자도 피통치자에게 가장 좋은 것을 생각하고 명령합니다.



< 보기 >

- ㄱ. 갑: 통치자는 정의를 규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
- ㄴ. 갑: 법률은 통치자의 이익을 유지하기 위한 수단이다.
- ㄷ. 을: 통치자는 피통치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을 고안한다.
- ㄹ. 갑, 을: 정의는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유익한 것이다.

- ① ㄱ, ㄴ
- ② ㄱ, ㄹ
- ③ ㄷ, ㄹ
- ④ ㄱ, ㄴ, ㄷ
- ⑤ ㄴ, ㄷ, ㄹ

20. (가)의 중국 사상가 갑, 을의 입장을 (나) 그림으로 표현할 때, A ~ C에 해당하는 진술로 가장 적절한 것은? [3점]

(가)	갑: 사람은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부끄러워하는 마음, 사양하는 마음, 옳고 그름을 따지는 마음이 있다. 이 네 가지 마음[四端]을 넓혀 채우면 천하가 안정된다. 을: 사람은 나면서부터 이익을 좋아하는데, 본성과 감정을 따르면 다투고 분수를 어기고 이치를 어지럽히게 된다. 그러므로 스승과 법도에 따른 교화와 예의(禮義)의 인도가 있어야 한다.
(나)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left: 20px;">           &lt;범례&gt;            A: 갑만의 입장            B: 갑, 을의 공통 입장            C: 을만의 입장         </div>

- ① A: 배움을 통해 사단을 후천적으로 형성해야 한다.
- ② A: 천하의 안정을 위해 백성의 본성을 바꾸어야 한다.
- ③ B: 도덕적 수양을 통해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
- ④ C: 사람은 선과 악의 본성을 동시에 가지고 태어난다.
- ⑤ C: 예의와 법도를 배우고 익혀서 본성을 회복해야 한다.

#### \* 확인 사항

- 답안지의 해당란에 필요한 내용을 정확히 기입(표기) 했는지 확인하시오.